

선거구 재획정 앞두고 '동구 구하기'

새정치 광주시당,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 요청 왜?

올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최근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2대1 인구편차 조정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이 광주시의 구간 경계조정을 통해 현재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인데다 지역주민 편의가 아닌 '선거구 지키기'를 위한 구간 경계조정이라는 점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국회는 올해 말까지 인구 비례 2대 1을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인구 2대1 원칙 결정은 인구 하한선 13만 8984명, 상한선 27만 7966명이다. 이를 적용할 경우 광주는 동구가 인구 10만 4000여명으로, 3만 5000여 명이 부족해 선거구 경계조정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동구는 인접한 남구와 선거구가 합쳐지거나 북구 읍과 합쳐져 국회의원 1석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면 이해득실에 따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간 복잡한 셈법이 본격화되고 신경전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광주시당은 선거구 획정을 놓고 지역 국회의원들 간 신경전이 발생하기 전에 광주시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 불일치 판결로 사라질 위기

지역 국회의원들간 합의도 없어

정부 승인·주민 반발 등 '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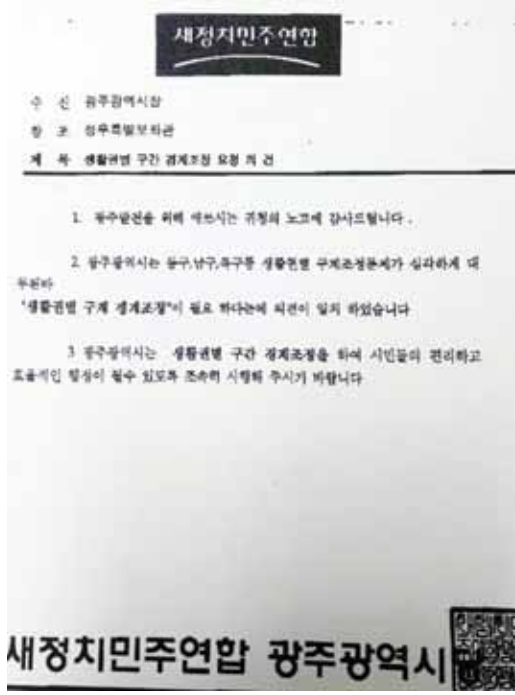
광주시가 선거구 인구수를 감안해 구간 경계조정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선거구 8곳을 지킬 수 있는 점 때문이다. 정치권의 어려운 숙제를 광주시로 슬그머니 넘긴 셈이다.

이로 인해 광주시는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간 경계조정이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등과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양면이다. 특히 일부 국회의원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 간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자치구 간, 지역민들 간 동의와 합의도 뒤따라야 한다. 앞서 지난 2011년 10월에도 한 차례 구간 경계조정이 이뤄지면서 '홍역'을 치렀다. 당시 북구 동림동, 운암동 일부가 서구로, 북구 풍향동, 두암 3동, 중흥 1동, 우산동 일부가 동구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1만 6681명, 동구 5068명, 광산구 234명, 남구 4명이 증가했고, 북구는 2만 1987명이 감소했다.

당시 지역민들의 반발도 상당했고, 감기정(북구 읍) 의원은 생활편의를 무시한 구간 경계조정이라고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광역시

새정치 민주연합의 구간 경계조정 요청 공문.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정부의 승인이다. 제20대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구간 경계조정을 해줄지 만무한데다 광주보다 인구는 많지만, 국회의원 수가 6명으로 광주보다 적은 대전지역 정치권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정부 승인이 쉽지 않은 일"이라며 "선거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한 동구와 인접 지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야만 구간 경계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혔다. /최원기기자 cki@kwangju.co.kr

위대한 천재...손녀 기억속엔 냉혹한 할아버지



(103) 피카소



피카소 작 '안락의자에'

최근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손녀 마리아 피카소가 유산으로 받은 피카소의 작품 1만여 점을 팔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일찍이 마리아는 회고록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에서 한 위대한 천재의 그늘 아래 고통 받는 평범한 가족의 비애를 고백하기도 했었다. 마리아는 피카소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러시아 디아겔로프 발레단의 젊은 무용수 출신의 율가 호플로바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인 파올로에게서 태어난 딸. 그녀는 회고록에서 피카소를 '잔인하고 냉혹한 할아버지'라 기억했다.

피카소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여인들에게서 받는 영감을 제각각의 색을 지닌 다양한 작품으로 만들어냈던 작가는 없었을 것이다. 피카소는 평생 가깝게 지낸 여성이 8명에 이르지만 결혼은 두 번만 했다고 한다. 파리 몽마르트에서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피카소는 '청색 시대'의 슬픔에서 벗어나 '장밋빛 시대'를 만끽하고, 전통적인 기법과 결별한데 이어 큐비즘을 실험하던 시기까지, 변신의 기점마다 늘 새로운 동반자로부터 예술적 영감을 받았다.

작품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율가'(1917년 작)는 피카소가 큐비즘 시기 이후 전통적 초상화 기법을 다시 사용했던 작품이다. 율가가 자기 자

신을 그린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꼭 닮은 초상화를 요구했기에 정확한 대생, 모델의 전형적인 자세, 명암이 뚜렷한 볼륨 등을 묘사한 것이다. 피카소가 입체감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율가는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의자에 걸터앉은 것처럼 보인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피카소는 오랫동안 위대한 화가의 대명사였던 것 같다. 미술사학자들의 평가대로 "항상 전통과의 단절과 혁신적인 작업을 통하여 예술의 세계를 신장"시켰던 피카소는 큐비즘, 파피에 콜레, 추상화, 조각, 도자기 등 한 작가의 성취로는 믿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양식을 완전하게 구현했기 때문이다. 그런 피카소에게에 대한 '한 점의 그림'으로 그 심오한 예술적 행간을 다 채울 수 없음이 안타깝기만 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박사>



광주시에 강철철거 대신 공동체 중심의 구도심 재생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도심 속 폐촌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단지으로 새롭게 태어난 동구 산수동 '호두메 마을' 전경. /최원기기자 choi@

광주시 공동체 중심 구도심 활성화

도시재생 전략 수립 용역 보고회...전면 철거 방식 탈피

광주시에 기존 강철철거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 중심의 구도심 활성화에 나선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도시재생 전략 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에서 구도심의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의 안정적 생활 조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고회에서는 외곽 신시가지 개발로 구도심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전통시장 쇠락, 공공기관 이전,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경제적 기반도 상실돼 도시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후주거환경 개선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 중심의 전면 철거로 주민 간 갈등과 공동체 붕괴 등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켜 원주민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시에 이에 따라 구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로 하고 전략계획에 반영할 의견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관련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주민공청회와 방문조사 등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골목길·건물·인물 등 유·무형자원 발굴에 관련 부서와 기관은 물론 문화기획자,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사업 단체들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누구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웹사이트, 앱, SNS 등도 구축해 활용할 방침이다.

송형석 광주시 도시재생과장은 "내년 2월 나올 예정인 용역결과와 전문가·시민의견을 반영해 도시재생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며 "고유의 역사와 문화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7명 확정

공무원 4명·시의회 2명·교수 13명·직능단체 추천 7명

광주시 민선 6기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이 마무리 됐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6기 2년간 광주 도시계획을 사실상 책임질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7명을 확정했다.

오현국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4명과 박춘수 시의회 행자위원 등 시의원 2명, 김기홍 시민단체협의회 등 직능단체 추천 7명을 포함한 13명이 위촉·임명됐으며, 공개모집은 조순철 동신대 교수 등 교수 13명, 언론인 1명 등 14명이 선임됐다.

지난해 12월 8일 마감한 공개모집 공모에는 무려 52명이 지원해 3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토지의 용도나 시설을 결정하고

아파트 단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심의·자문하는 등 도시행정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대표적 위원회다.

이날 확정된 위원 중엔 윤장현 광주시장의 인수위원장을 역임한 송인성 전남대 명예교수, 인수위원인 이명규 광주대 교수가 포함됐다.

이 교수는 민선 6기 들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전담팀(TF)에 참여하면서 자신과 입장을 같이 하는 위원을 무더기로 추천하는 등 물의를 벌여 중도에 하차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특히 도시철도 TF 등 무려 7개 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실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호남예술제 60주년 기념공연

베를린 필하모닉 스트링 콰르텟

기교적 완성도와 예술적 몰입에 대한 최상의 기준을 제시하는
세계 최정상 '현악 4중주단' 내한공연

2015 Philharmonia Quartet
BERLIN
with the Pianist
CHO JAE HYUCK

VIP 80,000원 / R 60,000원 / S 40,000원 / A 20,000원

주최 **광주일보사** · 아시아문화

주관 **DK3 문화공방다케이비주** 후원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 문의 062.523.0333